"호남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

5월 묵념·'임 행진곡' 제창후 연설

문재인 광주유세 동행 취재

금남로 거리유세 시민 수백명 "문재인 파이팅" 연호

김응용·김성한 전 타이거즈 감독 유니폼 건네며 응원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대구 성서공단삼보모터스→경북대 북문→대전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수원역→서울 광화문(17일), 제주 4·3 평화공원→제주도의회→제주동문시장→전북대 구정문→전주덕진노인복지회관→광주 충장로(18일).

지난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틀동안 1000㎞ 이상을 이동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텐데도 18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장미대선의 승부처이자 지지 기반인 호남의 중심 유권자들이 뜨겁게 환대하자 그의 표정도 활짝 펴졌다.

문 후보는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6시20분부터 시작된 유세 현장은 박영선·이개호·이재정·백혜련 의원과 이형석·양향자 최고위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 후보 지지 인사들과 시민 수 백여 명으로 가득찼다.

문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가던 길을 멈춘 시민들은 문 후보를 에워싼 채 "문재인", "문재인 파이팅" 등을 연호했다. 충장로 거리유세를 마친 뒤 연단에 오른 문후보는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을 붙잡아 말을 붙이고 악수도 건넸다.

문 후보는 포옹을 원하는 지지자들에겐 거리낌없이 안아줬다. 문 후보는 특히 예전과 달리 온화한 미소와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호 1번을 표시하는 '엄지척'을 내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김응용·김성한 전 타이거즈 감독은 연단에서 문 후보에게 해태타이거즈 유니폼과 야구 방망이 한 자루를 건네며 응원했다. 문 후보는 연설에 앞서 5월 영령들을 위한 묵념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들과 제창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광주와 호남이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제가 승리하지 못했다. 이는 호남의 패배가 아니다. 그 아픔 제가 이번엔 꼭 풀어드리겠다면서 "더 이상 패배는 없다. 더 이상 호남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오는 5월 9일 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저 문재인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습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가 15분간 연설을 하는 동안, 시민과 지지자들은 연이어 "문재인", "문재인"을 연호했다. 문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 곧장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문 후보의 유세에 앞서 진행된 지지연설에서 "광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곳 충장로가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바로 그 거리"라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권교체, 명료하고 명증한 정권교체를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광주가 그 흐름을 리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광주시민들의 그 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유세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서문시장 찾은 안철수 "안보대통령 되겠다"

광주보다 인파 더 몰려

오전엔 대전 카이스트 대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전날 호남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18일 '중원'인 충청권과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았다. 올해만 세 번째 방문으로 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안 후보 측에서는 전날 광주 양동시장을 능가하는 열기로, 몰려든 인파로 인해 안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겨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안 후보가 서문시장을 벗어났는데도 시민들이 계속 따라오며 악수를 청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이어 안 후보는 대구백화점 앞으로 이동해 유세하고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계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안보대통령이 되겠다. 북한이 저를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자강안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이 밀어주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대구가 미래와 통합,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세에는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훑은 손학규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했다. 손 위원장은 "홍준표를 찍으면 누가 되죠. 문재인이다. 안철수를 찍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뤄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사람은 누구인가. 안철수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로 이끌 사람 누구인가. 안철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아침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KAIST와 중앙시장을 차례로 찾아 득표활동을 벌였다.

대전은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후보 선출식이 열린 지역인데다, 안 후보 개인적으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교수를 지냈고 2011년 청춘콘서트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KAIST 학생들과 과학정책에 대한 대화에서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과학계 주도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면 참담하다. 알파고 나오니 AI(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고 포켓몬고가 나오니 VR·AR(가상·증강현실)한다고 난리"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기초연금 올리고 틀니 부담금 낮추고…文·安 노인복지 공약 발표

대선레이스 양강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8일 동시에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 지원 강화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놨으나 세부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의 경우, 현재 어르신이 틀니·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의 50%(치아 하나당 평균 50만~60만원선)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문 후보는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현재 50%인 틀니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임플란트는 아직 시술 방법과 비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20만40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두 후보 모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하되, 지급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50~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확충과 관련 수당 인상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사항이다.

문 후보는 사회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근로 일자리수당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5년간 매년 5만개씩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수당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무안에서 출발하는 일본 **북큐슈 美親 특가**

무안출발 항공 + 하카타출발 선박
3일 198,000~ 4일 298,000~
- 출발일 : 매주 일요일
- 포함사항 편도항공,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단, 선내식 불포함)
- 불포함사항 선내식,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

무안출, 도착 항공3일
3일 498,000~
- 출발일 : 매주 금요일
- 포함사항 왕복항공,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무안출, 도착 항공4일
4일 498,000~
- 출발일 : 4월 30일
- 포함사항 왕복항공,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원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TEL:062-234-3222 FAX: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 금 환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용버스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